

엽기의 미학적 개념화를 위한 탐색

-잔혹성과 공포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을 향하여-

최애영*

1. 문제제기
2. 한국사회에서의 엽기 취향의 역사
 - 2-1. 1930년대, 재미와 호기심으로서의 엽기
 - 2-2. 기괴함에서 잔혹성으로, 호기심에서 공포로
 - 2-3.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엽기’ 미학의 출현 조건
3. 獵奇와 무의식
 - 3-1. 獵奇의 새로운 의미해석
 - 3-2. 獵奇와 프로이드의 das Unheimliche, 공포 그리고 죽음충동
4. 새로운 문제제기

국문초록

이 글은 ‘엽기’라는 단어를 과연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하나의 미학적 개념으로 세울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대개는 이 말의 뜻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잔혹상’과 ‘공포’를 떠올린다. 그러나 비일상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로테스키와 맞닿은 기괴함이 낯설의 공포는 포함할 수 있을지언정, 무슨 근거로 잔혹성을 연상시키는지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어떻게 비상식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수 수깨끼 감정 이상으로 잔혹성에 대한 끔찍한 감정이나 공포감을 자아낼 수 있을까? 이 글은 ‘엽기취향의 역사를 더듬어 살펴보면서 이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의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일상화되어버린 ‘엽기’가 아닌, 한 독특한 문화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2차 개념으로서 ‘엽기의 미학적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때 우리의 관점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미학이다. 이를 위해 면밀한 한자 풀이를 통해 얻은 ‘엽기’의 깊은 의미를 억압된 것의 회귀와 연결짓고, das Unheimliche, 쾌락원칙, 죽음충동 등의 프로이드의 이론을 동원함으로써, 억압된 것의 회귀가 불러일으키는 불안함과 공포를 ‘엽기’의 유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그리고 현대인의 고립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된 개인의 나르시시적 상처가 불러일으키는 권태가 상상력을 공격적이고 파괴적으로 만든 측면이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함으로써 ‘엽기’ 단어의 광범위한 일상화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 이면에는 잔혹성의 의미소가 잔재해있다는 사실을 해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엽기, 공포, 잔혹성, 그로테스크, 무의식)

1. 문제제기

이 글은 ‘엽기’라는 단어를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하나의 미학적 개념으로 세울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엽기’ 혹은 ‘엽기적’이라는 단어는 거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서는 이제 그들만의 문화현상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¹⁾ 이 단어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직후, 유머를 동반한 다양한 담론들을 생산하는 하나의 정서적 혹은 미학적 표현 카테고리 되어 한국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엽기토키’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진 캐릭터, 마시마로(Mashimaro)가 오프라인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엽기유머라는 이름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담론들이 대량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피시통신 나우콤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별나우’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국어사전에 꼭 올려야 할 통신 용어를 설문조사한 결과 ‘엽기’가 1위로 꼽히기도 했다.²⁾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물이나 판타지의 붐이 일며³⁾, ‘엽기’라는 꼬리표를 단 창작물들이

-
- 1) 정철상의 논문, 「청소년의 엽기문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 15권 제 2호, 2008, 121-145쪽은 청소년들에게 엽기문화가 어떻게 출현하고 소비되고 있는지 그 사회적 심리적 배경을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 2) 『새국어 소식』, 2001년 8월 8일.
 - 3) 천정환에 따르면, 1990년대 말부터 한국에 이른바 판타지 소설 붐이 일어났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반지의 제왕』, 『해리 포터』 시리즈, 『에드가 알란 포 전집』, 『셜록 홈즈 전집』, 『루팡 전집』이 번역되거나 재조명되며 크게 인

꾸준히 인터넷 카페들 사이에서 교류, 소비되어오고 있고, ‘엽기취향’을 공유하는 많은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엽기광고’, ‘엽기패션’, ‘엽기캐릭터’에 이르기까지 ‘엽기’라는 개념이 침투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취향은 부조리한 현실과 따분한 일상의 금기로부터의 탈출, 새로운 것의 강렬한 자극이 일으키는 쾌감을 추구하려는 욕구의 표출로 우선 설명할 수 있다. 대량 실직 사태가 빚어낸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목을 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차별성을 담보해줄 ‘개성’이 필요한데, 이 맥락에서 ‘개성’은 ‘독특한 것’, 따라서 ‘튀는 것’이라는 관념이 새로이 싹트게 된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부정적인 것으로 억눌러왔던 개인주의가 한국사회에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었고, ‘엽기취향’은 이러한 현대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반영하게 되었다. 게다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국제적인 교류가 중요시되면서 탈경계라는 포스트모던적 개념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사회를 이끌어오던 원동력이라고 할 단일성과 순수성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이 후퇴하면서 이질적인 것과의 혼합을 통한 잡종에 관한 관심의 대두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논리적 혼합의 낯선 결과물인 하이브리드는 바로 괴물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괴물은 결코 무로부터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재료들을 배합하고 조직하는 상상력의 낯선 방식에서 얻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담론들의 홍수 속에서 정작 ‘엽기’라는 말의 뜻을 묻는 질문에 선뜻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개는 가장 먼저 ‘잔혹성’과 ‘공포’를 떠올린다. 이것은 ‘엽기적 살인사건’이라는 표현이 토막 살인사건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다시피 해온 습관에

기를 끌고 있다(『개몽주의 문학과 재미의 근대화』, 『역사비평』 n° 66, 2004 봄, 363쪽, 주 25).

기인하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말의 의미의 범위는 더욱 넓어져서 대책 없이 황당무계하거나 기상천외한 사건 혹은 상황을 가리키기까지 하여 잔혹성의 의미가 거의 희석되어버린 느낌마저 들 때도 있으며, 이러한 의미 확장을 통해 ‘엽기’라는 단어는 이제 긍정적으로는 ‘튀다’, ‘조금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독특한 개성을 지니다’, ‘뜻밖이거나 과격적이어서 신선하거나 자극적이거나 충격적인 것 또는 웃기는 것’, 혹은 좀 거칠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짜가지가 없다’ 정도의 거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잔혹성, 파괴성, 공포, 끔찍함 등의 격렬한 정서적 요소들이 엽기 취향이 발현되는 형태나 그러한 취향에 수반되는 어떤 정서적 효과의 바탕 그 자체로 인식되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예로서 두 가지 경우를 들어보자.

먼저 김주리는 「엽기취미의 조직과 1930년대 범죄소설의 의미」⁴⁾에서 ‘엽기’에 관해 간접인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탐구라는 측면에서 범죄소설은 신체에 대한 절단과 폭력적인 죽음을 다루며 엽기적인 감각과 취미를 조직한다. 엽기는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잔혹하거나 역겨운 행위를 의미하며, 엽기의 기괴함은 네크로필리아적인 폭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파괴성에 대한 지향이며 시체, 해골, 부패물과 오물 등에 대한 매혹을 보여준다. 엽기는 억압적인 사회에서 터부시되는 것들에 대한 동경을 통해 감각을 금기의 틀에서 꺼내 일상의 규칙과 예측 가능한 결과를 뒤트는 그로테스크 정신에 닿아 있다. (90쪽)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엽기는 파괴성 혹은 폭력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글에서 김주리는 한편으로는 “엽

4) 김주리, 「엽기취미의 조직과 1930년대 범죄소설의 의미」, 『현대한국문학회 2007년 동계학술발표회』, 88-102쪽.

기성”과 “신비성”(92쪽)을 거의 등가로 취급하면서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것이 곧 엽기 취미에 부합하는 것이라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만식의 『염마』의 중심에서 추리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손가락 한 토막은 독자들에게 공포와 전율을 주는 “엽기적인 범죄”를 암시한다고 말한다. 이때 ‘엽기적 범죄’는 신체 절단이라는 잔혹성의 의미를 내포한다. 탐정소설을 엽기 취미의 한 근대적 형태로 특징짓는 관점에서 볼 때, 잘려나가 홀로 떠도는 손가락 한 토막의 원래 소재지를 추적해나감으로써 진실을 파헤쳐야 할 탐정소설의 엽기는 미스터리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공포라는 정서적 효과는 범죄의 잔혹성 보다는 진실에 접근해가는 근대적 주체의 합리적 인식행위, 즉 미지의 것에 대한 발견이나 은폐된 진실의 파헤침에서 오는 두려움과 오히려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김주리는 신체 절단을 ‘엽기적’이라는 형용사로 수식하면서 곧장 잔혹성과 연결시킨다. ‘엽기’를 단순히 살인사건과 관련짓지 않고 좀 더 커다란 유희적 카테고리 속에서 고려할 때, 괴기함과 잔혹성의 관계는 의문으로 남는다. 명사와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형용사 사이에 의미장의 확대를 의심해야 하는 것일까? 어쨌든 ‘엽기’라는 단어를 냉정하게 생각해볼 때, 비밀상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로테스크와 맞닿아 있는 괴기함이 낯섦의 공포는 포함할 수 있을지언정, 무슨 근거로 잔혹성을 연상시키는지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 단어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요즘 청소년의 다양한 엽기문화에 관한 논문에서도 같은 현상을 확인하게 된다. 정철상은 「청소년의 엽기문화의 연구」에서 “엽기문화의 시작은 엽기를 추구하는 메니아 집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이들은 스니프를 추구하던 일련의 메니아로서 이들에 의해 살인 장면이나 사고로 인해 처참하게 훼손된 시체사진들 따위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되고, 인터넷에는 이들의 정보물이 유포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고는, 이러한 현상을 “전통적인 엽기문화”³⁾라

고 단정 지으며, 살인, 강간 등의 사진이나 영상물뿐만 아니라 구토, 분비물과 부패한 육체 등, 신체의 훼손이나 해체와 관련된 호기심이나 취향을 전형적인 엽기 형태로 들고 있다. 정철상은 ‘엽기’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잔혹성과 공포의 개념은 이 단어의 근본 의미로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논문 저자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적인 언어관습의 문제로 보인다. 다시 말해 문제는 이러저러한 현상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현상들을 유독 ‘엽기’라는 단어로 가리키는 우리의 언어현상에 있다. 이 단어를 통해 일상적으로는 비상식적인 것들을 매우 광범위하게 가리키면서 무의식적으로는 잔혹성과 공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엽기’라는 단어의 일상화된 표현과 그것의 공포와 잔혹성이라는 미학적 개념 사이의 괴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엽기 취향이 90년대 말의 금융위기가 초래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최근 발생한 새로운 문화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질문에 흥미를 더해준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유희 형태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상상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엽기취향’의 역사를 더듬어 살펴 보면서 이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의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일상화되어버린 ‘엽기’가 아닌, 한 독특한 문화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2차 개념으로서 ‘엽기’의 미학적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때 우리의 관점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미학이다.

5) 정철상, 『청소년의 엽기문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 15권 제 2호, 2008, 125쪽.

2. 한국사회에서의 엽기 취향의 역사

2-1. 1930년대, 재미와 호기심으로서의 엽기

‘엽기’라는 표현은 일본의 소화시대 초기, 특히 1930년대에 유행했던 일본문화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당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같은 시기 조선에서도 엽기가 유행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엽기취향이 한국에서 자생한 것이냐,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냐를 떠나서,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현대의 엽기취향이 전적으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일단 분명하다.

‘엽기’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수입된 단어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1세기 세종계획’ 홈 페이지에서 ‘한민족 언어정보’와 ‘정보마당’ 등을 검색했고, 언어학 전공 연구자의 도움으로 한국 고전문학 속에서 이 단어의 출현 여부를 추적해보았으며, 국사편찬위원회 통감자료검색,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대학도서관으로서는 표본으로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검색해본 결과, ‘엽기’라는 단어가 일본에서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한국에서 최초로 사용된 시기는 1930년경일 가능성이 크며, 필자의 검색 범위 안에서는 1930년 3월 30일에 발간된 동아일보의 「書庫獵奇」라는 신간안내 칼럼이 최초이다.⁶⁾ 그리고 『개벽』, 『삼천리』, 『동광』, 『별건곤』 같은 잡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출판되었던 일본어 도서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엽기’라는 단어나, 제목에 이것을 포함하는 서적들은 1931년에서 193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33년 10월

6) 천정환에 따르면, 엽기 붐으로 일본에서 『괴담전집(怪談全集)』(1928)과 『세계엽기전집(世界獵奇全集)』이 수입되었고, 조선에서도 『괴기』(1929)와 『엽기』(1933)가 창간되었다(『계몽주의 문학과 재미의 근대화』, 『역사비평』 n° 66, 2004 봄, 355쪽). 아쉽게도 그는 『세계엽기전집(世界獵奇全集)』의 발행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6일자 동아일보에서 볼 수 있듯이, ‘平壤獵奇社發行’으로 잡지 『獵奇』가 창간될 정도로 엽기는 근대 한국인들의 문예담론의 주요 재료가 된 듯하다. 이 잡지의 창간은 1933년 前後가 ‘엽기’에 대한 담론 생산의 절정이었음을 말해준다.⁷⁾

이와 같은 자료조사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1930년대 엽기의 의미장이 현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엽기’의 확장된 것과는 오히려 가깝지만, 원래개념이라고 믿고 있던 것, 즉 잔혹성과 공포가 결합된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 시대 잡지들에 수록된 글들의 주제를 살펴보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어렵짐작할 수 있는데, 대략 ‘신비감’을 주는 ‘교묘’하고 ‘괴상한’ 것에 대해 이끌리는 ‘호기심’의 독특한 표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모험심’, ‘그로테스크’에 이끌리는 ‘취향’, ‘에로 그로’의 환락을 추구하려는 욕망, 오리무중인 사건, 묘연한 행방 등이 불러일으키는 수수께끼 감정,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온갖 범죄와 알려지지 않은 흥미진진한 일들이 일상으로 벌어지는 도시, 항구의 오마조마한 분위기나 카페의 퇴폐적인 분위기,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캐내려는 고약하고 저급한 선정적 취미, 등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사이에 굳이 공통점을 지적하자면, 일상적이지 않은 미지의 낯선 것을 찾는 행위의 두려움과 흥분이 혼합된 두근거리는 감정, 다소의 심리적 금기가 작용하는 어떤 대상의 경험

7) 당시에 한국의 대중문학이 얼마나 편중되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절을 읽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대관절 朝鮮안 신문지에 일시에 10種이상의 創作小說이 발표된 적이 잇었나? 그런 일이 었었다는 점에서 今春爾來의 이 현상은 확실히 기록적인 사실이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의미에서 깃벼하야도 조흔 일이라 할 것이니 첫째 從來 오랫동안의 新聞界의 因襲이 되어 잇는 低級한 翻譯小說을 청산하고 신문지면으로부터 그 종류의 눈물을 잡아 짜내려고 덤비는 따위나 혹은 범인은 누구냐는 千篇一律式的 獵奇心을 끄어들어 단길려고 덤비는 따위의 소설을 驅逐해 버리었다는 것이 그 하나이오(...)”. (金八峯, 『新聞 長篇小說 時感』, 『삼천리』 제 6권 5호, 1934년 5월, 222-23쪽.)

이 주는 설렘과 짜릿함, 다시 말해 억제되었던 어떤 충동을 해소하는 쾌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대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의미 확장의 광범위함에는 비교될 수 없지만, 그 다양성의 범위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그 의미장이 “비정상적이고 괴이한 일이나 사물에 흥미를 느끼고 찾아다님”이라는, 『표준국어대사전』이 정의하는 일차 사전적 의미에 상당히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천정환의 말대로, 근대로 접어든 조선사회가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나타난 일종의 “재미의 근대화”(350쪽)의 한 현상으로서 이 단어를 이해하게 해준다. 즉 이 시대의 ‘엽기’는 구시대적 권선징악적 교훈을 탈피하고자 하는 근대 예술의 열정이 취한 현실적 서술태도와 신사상의 맹아에 담겨있던 계몽주의적 요소가 어울린 근대적 리얼리즘이 불가피하게 회귀할 수밖에 없었던 계몽주의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었다. 여기서 엽기는 ‘그로테스크’의 일상적 혹은 미학적 실천⁸⁾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사적 관찰은 ‘엽기=괴기함+잔혹성+공포’라는 공식에서부터 오늘날 그 의미가 확장 혹은 일탈되었을 것이라 믿었던 일반적인 선입관을 깨어버린다. 이제 우리는 엽기-괴기함-잔혹성-공포라는 개념고리에서 오히려 의미의 변질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2. 괴기함에서 잔혹성으로, 호기심에서 공포로

그러면 ‘엽기’라는 표현이 어떻게 잔혹성과 공포를 자동적으로 연상시키기에 이르렀을까? 그 대답을 찾기에 앞서, 당시 조선 대중이 엽기취

8) 예나 지금이나 쾌감을 얻기 위해 자극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듯하다. 이러한 욕구와 엽기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현대인의 신경은 나날이鈍해 간다. 현대과학의 끈임없는 刺戟에 극도로 침예화한 그들의 신경이 밝은 반동적 경향이리라. 이리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새 부질없이 괴기를 찾는 일종의 獵奇癖이 생겼다.” (—記者, 『巨人 金富貴를 料理했소』, 『별건곤』 제 32호, 1930년 9월, 124쪽)

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래의 글은 1931년을 시작하면서 열린, 잡지 『별건곤』의 대담의 일부를 옮겨놓은 것이다.

方 지금 조선서 제일 기괴-그로한게 무얼가? (...)

蔡 그로를 찾자면 흥가이야기에서나...? 그러나 지금 조선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로에 대한 엽기적 취미에 대해서 인연이 멀기때문에 흥가가튼것을 그로로 환영하기 보담 재래의 관습으로 공포를 늦기고 기괴를 하니까....

方 그러면 짜-나리즘으로의 흥가만 말할것이 아니라 그저 일반적으로..

朴 독개비 귀신가튼 이야기도 만히잇지.

蔡 엇갓거나 지금 우리가 그로를 구한다면 그런갓밧게는 업갓지. (좌담, 「넌센스 本位, 無題目座談會, 本社社員끼리의」, 『별건곤』 제36호, 1931년 1월, 137쪽)

위의 대담은 엽기 담론의 유행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던 초창기에, 그러한 담론들의 수입 주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저널리스트들 사이에 벌어진 대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로’를 즐기는 ‘엽기적 취향’은 애초에 공포와 필연적인 관련이 없으며 조선 사람은 전통적으로 공포를 즐기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날의 공포물의 유행이 오히려 새로운 현상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엽기취향은 합리성에 대한 인식이 싹트면서 등장하게 된 현상이었다. 조선사람은 흥가 같은 것을 즐기기도 하는 공포를 느끼고 기괴하다는 사실은 기괴함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믿음에서 탈피한 다음에야 비로소 ‘엽기’를 유희의 일환으로서 즐길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런 관점에서 엽기는 근대적인 지식을 갖추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서구의 환상문학이 일단 근대의 합리주의에 의해 악마에 대한 신비주의적 믿음이 깨진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담론의 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기록이 있다. 읽어보자.

“이제야 三面 記事的 恒茶飯의 사실보다, 김빠진 연애소설보다, 노파들의 입에서 풀여 나오는 神話怪談에 귀를 기울리게 되었다. / 童話의 세상이 오려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오래 떠났든 동심으로 도라 가려 함인가! 하여튼 이러한 엽기풍은 경박한 양키-들의 朝變夕化的으로 變轉하는 유행심리만은 안이다. 항상 畸形的 진로를 밟고 있는 터이라 그들과는 생활이 엄청나게 다르건만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心理가 움죽이고 잇섯든 것이다.”(一記者, 『巨人 金富貴를 料理했소 , 『별진곤』 제 32호, 1930년 9월, 124쪽)

위의 기사가 1930년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엽기라는 단어는 일본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고, 일본으로부터 『엽기 세계전집』을 수입했던 사실이 말해주듯, ‘조선인들은 서양 사조를 맞보면서 엽기풍’ 또한 직감할 수 있었다. 다만 잔혹성과의 결합 여부를 떠나, 어떤 계기로 일본에서 ‘엽기풍’이 유행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조선에서도 ‘엽기’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듯하다. 어쨌든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엽기풍’은 상당히 경쾌하고 낙관적인 어조로 다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풍조는 ‘신화괴담’과 ‘동화’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앞선 인용문에서 도깨비와 귀신 이야기가 조선의 ‘그로’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1930년대에도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일간지의 사회면을 장식했고, 그때마다 ‘엽기’, 혹은 ‘엽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살해 수법의 끔찍함이나 잔혹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장차 해결해야할 미스터리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경우들이다. 일반적으로 사실보도의 진실성을 담보하거나 적어

9) 이에 관해서는, 최애영, 『데카르트에서 카조트 사이에 등장한 악마의 운명 : 욕망의 복원에서 새로운 은폐로』, 『불어불문학연구』 제60집, 2004년 겨울, 427-464쪽 참고.

도 담보하는 것처럼 보여야 할 일간지의 기사제목, 예를 들어 「自殺? 他殺? 判決이 困難, 獵奇味 百%의 固城怪屍」(『동아일보』, 1932년 2월 11일, 7면)나, 「殺害事實은 否認하나 疑點의 追窮엔 愕然, 「마리아」 殺害事件의 獵奇的 公判」(『동아일보』, 1933년 12월 6일, 2면) 혹은 「엽기 흥미 100%의 부산 마리아 사건, 예심 종결로 알게 된 범행의 전후...」(『조선중앙일보』, 1933년 11월 12일, 2면)에서 보듯이, 극악한 범죄인 살해 사건에 대한 신문의 어조는 ‘엽기 흥미 100%’라는 표현으로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기까지 한다. 1935년에는 오늘날 흔히 생각하는 엽기적 장면을 떠올리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지상에 나타나긴 하지만, 「耕地하던 농부들이 부란된 人脚 발견. 삼십세 이상 남자의 左脚으로 판명」(『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2일, 3면)이라는 기사제목처럼, ‘엽기적’이라는 단어가 아직 전면에 내걸리지는 않는다.¹⁰⁾ ‘엽기적’이라는 단어가 어조를 달리하여 사용되는 것은 1938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獵奇的 犯罪? 釜山海岸에 漂着된 목 떠러진 溺死體 釜山 水上署 嚴重內査」(『동아일보』, 1938년 3월 4일, 8면), 혹은 「病院에 버린 獵奇的 怪屍體 東署에서 活動開始」(『동아일보』, 1938년 4월 19일, 2면)과 같은 기사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제 ‘엽기적’이라는 단어는 30년대 초기의 어조와는 달리, 신체 절단이나 시체 유기처럼 매우 심각한 사건들과 결합하여 섬뜩한

10)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색 결과로 채집된 자료 가운데 잡지에서는 드물게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엽기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기사가 1935년에 게재되었다. “이제 이 사건의 내막을 간단히 써보면 穩城 어느 시골에는 강감한 안인 밤중을 틈타서 어떠한 강도가 그 동이의 어느 농가에 달여들어 잠자는 여자 한 사람을 무참히도 장당에 죽여 버리고 또 주인 남자(당시에도 50에 가까운 노인) 한 사람을 칼로 찢어서 면상고 허리에 상처를 주워, 고요하게 정숙에 깃허 가든 국경의 밤 穩城 일대를 잠시간에 물결뒀 뒤집게 한 엽기적 대사건이었다고 한다. (李洙倬事件의 擔任辯護士 沈相弼, 「死刑에서 無罪로, -내가 辯護하여 死를 免케 한 記」, 『삼천리』 제7권 제7호, 1935년 8월, 156쪽) 여기서 ‘엽기적’이라는 표현은 잔혹성을 의미하기보다는 ‘센세이셔널’이라는 의미로 더 읽힌다.

공포를 자아내며 독자들의 관심을 유인한다.

집작컨대, 이러한 변화는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도는 일본의 긴장된 정세와 무관하지 않을 듯싶다. 실제로 일본은 1935년부터 중국 침략을 위한 계획에 들어갔고, 마침내 1937년에는 상해사변으로 시작하여 잔혹성으로 얼룩진 난징대학살을 거쳐 중일전쟁에 돌입했고 1940년까지 전쟁을 지속한다. 그리고 이 전쟁은 곧장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무렵 한국의 문단 또한 전시체제에 들어서면서, 「戰爭과 文學, 現段階의 文學意識을 論함」(『삼천리문학』, 제 2집, 1938년 4월) 같은 글들이 발표되면서 엽기취향뿐만 아니라 개성을 추구하는 순수문학의 미학적 경향에까지 비판을 가한 다음 이 평론가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이제 전쟁을 직접 체험하는 만흔 사람들이 저들의 저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저의 생활에서 발견하여 正義感을 死以上으로 信仰하는 戰士의 犧牲적 정신과 또 그의 용감한 실천을 저들의 예리한 감정과 침통한 정조와 웅건한 필치로 표현함에 혹은 詩가 되고 혹은 畫가 되고 혹은 文이 되어 거기서 문학체계가 조직되고 의식이 형성되면 바야흐로 전쟁문학은 문학의 一流波로서 특수한 지위를 점유할 것이다. 그리하여 재래의 만담적, 엽기적의 戰爭物語는 대중의 嗜好하는 讀物로 해서 다시 나타나지 안코 모다 문학적이요. 또 교훈적인 전쟁문학이 대중의 조흔 벗이 될 것이다. (98-9쪽)

이처럼 엽기담론에 대한 비판은 곧 전쟁문학에 대한 —정책적— 옹호로 이어지면서, ‘엽기’의 유희적 측면을 억압하고, 전쟁의 현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단어의 미학적 표현가능성 또한 제거해버리고 만다. 결과는 앞서 인용되었던 살인사건 신문기사들의 제목이 말해준다. 전쟁의 불안과 공포가 ‘엽기’의 억압된 유희적, 미학적 차원을 뒤덮으면서, 그 위로 신체 훼손과 절단의 이미지가 부각된 것이다. 임의로 병력을 동원하는 전체주의적 체제에서 생사의 여부는 오로지 국가 최고권의 결정

에 달리게 된다. 죽음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끔찍한 사건에 ‘엽기’라는 단어가 곧장 연상됨으로써, 엽기는 잔혹성과 죽음의 공포를 떠올리는 표현으로 변용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에도 전쟁의 충격은 쉬 가시지 않았다. 한국은 해방과 동시에 격렬한 좌우 이념대결로 많은 사회적 혼란을 겪었고, 1950-53년 전쟁을 겪었으며, 다시 남북의 이념대결이라는 초긴장 상태에서 억압적인 군사 독재시절을 겪게 된다. 그리고 신문지상에는 살인사건을 다루면서 감히 “엽기흥미”를 읊을 수 있는 기사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¹¹⁾ 말하자면 국가의 전제적인 권력이 모든 폭력을 극도로 억압함으로써 평화와 도덕성을 가장하는 동안, 폭력적 정치체제의 압력으로 위축된 개인의 상상력은 공포에 떨고 위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염두에 두고 현대 한국의 현실로 되돌아오자. 1997년 말 군사독재의 탄압의 상징이었던 김대중의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와 금융위기는 엄청난 대변혁을 의미했다. 국가 기반 전체의 변혁을 몰고 온 1997년말의 상황은 한편으로는 분명 폭압적 권력과 검열 및 감시의 후퇴 혹은 제거를 의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종말의 위기와 삶의 기반 자체가 와해되는 듯한 죽음의 공포를 몰고 왔다.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엽기’를 모티브로 하는 새로운 상상계가 열린 것이다. 우선은 고통스런 현실이 일깨우는 훼손과 절단이라는 잔혹성의 상상적 공간을 열었고, 그 다음 유머를

11) 실제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목차/초록 검색 결과, 1999년까지도 ‘엽기’는 아직 패륜적인 살인을 수식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더 짙으며, 2000년-2001년을 전후하여 ‘엽기’라는 단어의 자유로운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신문지상에서 새로이 발견된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들어 기자들이 더 이상 ‘엽기적 살인’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잔혹 살인’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예 : 『女공무원 잔혹 살해한 30대 구속(동해경찰)』, 『연합뉴스』 2008년 7월 23일 인터넷 판).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엽기’라는 단어 용법이 새로이 유희의 차원을 강조함에 따라, 현실 속의 잔혹성과 유희 속의 잔혹성이 서서히 분리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통해 고통을 해소할 출구를 찾았다. IMF가 터질 무렵의 상황을 배경으로 개인의 무기력함과 억압된 육체의 거북함을 폭발적인 충동 에너지로써 연출해낸 백민석의 『목화밭 엽기전』(2000년)처럼 세상의 변화를 좀더 일찍 직감한 작품들이 대략 2000-2001년을 기점으로 유머 엽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에 앞서 등장하여 새로운 담론의 장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1930년대 말에서 군사정권의 종식이 있기까지의 60여년간 진행된 엽기=잔혹성+공포라는 의미장의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잔혹성에 대한 공포를 내재화함으로써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준비했다고 할 수 있다. 공포가 외향적 유희를 떠나 내면화되고 심리화된 다음, 신성화되었던 폭력이 탈신비화 과정을 거쳤을 때 다시 인간 본유의 파괴 충동이 되올라 오면서 잔혹성의 미학을 낳을 수 있는 동력이 된 것이다. 즉 사회의 변혁으로 상상계에 새로운 표현환경이 조성되자, ‘엽기’라는 단어가 내재화된 잔혹성에 대한 상상과 공포 효과를 자연스럽게 함께 떠올리는 문화현상을 낳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파괴충동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충동으로 인식한 프로이드의 이론을 바탕으로 무의식의 미학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2-3.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엽기’ 미학의 출현 조건

‘엽기’의 의미에 대한 정신분석적 해석에 앞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유희로서의 ‘엽기’ 미학이 다시 출현하게 된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현대 한국사회의 ‘엽기’ 미학을,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1990년대 일본만화를 통해 유입된 ‘료우키’ 취향¹²⁾의 영향과 한국의 독특한 정치

12) 영화평론가 강진구에 따르면, 일본의 엽기(료우키) 취향은 사무라이 전통에서 비롯된 독특한 죽음의 미학에서 배태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육체의 훼손을 통한 죽음의 재현이 전통 문학 안에서 이미 오래전에 수용되어 왔다.

경제 상황의 결합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일이다. 1988년 올림픽을 통해 존재를 세계에 개방한 한국사회는 사상적으로도 서구사회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 되었다. 그 가운데에도 특히 육체, 욕망, 무의식, 포스트모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주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서구서적들의 번역 출판은 한국인의 인간관과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¹³⁾ 이 시기에 소개된 책들은 대개, 프로이드의 사상이 일반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은 서구의 인문학자들의 탈근대적 세계관을 담고 있거나 그러한 사상적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 것들이었으며,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육체를 지니고 욕망하는 존재이며, 충동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엽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기서 군사독재시절을 잠시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모든 국민의 생활여탈권을 움켜쥐어 전제적인 중앙권력이 한편으로는 모든 폭력의 근원을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는 적대자, 북한에 전이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모든 충동적인 성향을 도덕의 이름으로 억압하며 한국국민은 정신력이 강한 문명화된 순수 단일민족이라는 이미지를 각자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그것이 소위 ‘국민윤리’ 교육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성스러운’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반항세력은 가차 없이 처단했다. 이처럼 감시와 검열의 공포가 도덕의 이름으로 포장되고, 죽음과 피

(『한국의 엽기와 일본의 료우키 문화』, 『문화와 신앙』, 『문화읽기』, 활천사, 2001, 88-9쪽 참고)

13) 이러한 사상적 유입이 대중의 주체 인식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었는가 하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1999년 서점가 통합 베스트셀러 9위에 올랐던 김경일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나, 서갑숙의 『나도 때로는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후자는 1999년 10월에 출판되어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70만부가 팔렸으며, 이듬해까지 베스트셀러 목록의 상위에 올랐다.(『한국출판연감』 자료편, 대한출판협회, 2000, 58-9쪽)

의 위협이 너무도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검열의 시선이 내재화된 주체는 온전한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었고, 개인의 가장 내밀한 공간인 육체 또한 자신의 상상계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독재의 수장을 강력한 부권의 상징으로 떠받들고, 그것을 절대 권력으로 신성시하는 한편, 육체적 욕망과 충동적 에너지의 자유로운 표현과 표출을 억압함으로써 한국사회는 상상력에 쉽게 출구를 열어줄 수 없는 폐쇄된 신경증적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군사독재 시절의 상황은 유교 전통의 흔적과 무관하지 않다. 유교의 실제 가르침이 무엇이든 간에, 강력한 부권을 바탕으로 도덕국가를 세우려는 비전은 분명 독재체제 유지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봉사했다. 조선은 부친살해, 즉 弑逆이라는 원죄를 안고 건국한 왕조이다. 즉 프로이트가 말한, “죽이지 말라”라는 문명의 근본적인 명령,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는 금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러한 오이디푸스적 원죄로 인해 조선은 신성하고도 강력한 부권을 새로이 세울 이상적 명분을 필요로 했고, 그것이 바로 유교였다. 그들은 죽여 쓰러뜨린 부권을 절대적 권력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유학을 거의 종교처럼 신봉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어떤 회의도, 환멸도 인정하지 않았던 듯 보인다. 그리고 그 체제의 정점에는 잔혹성의 폭력을 독점하는 신성한 최고 권력자가 있었고 모든 부권전복의 시도를 잔혹한 처벌의 위협으로 철저하게 억압했다. 그러한 금기는 당연히 부자 관계에서도 절대적이었다. 게다가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라는 효경의 실천은 개인의 공간이자 자아의 상상계가 열리는 현실적 바탕인 육체에 강력한 초자아를 각인시킴으로써, 상상적 공간이 육체를 근거로 하여 개인의 내면으로 열릴 가능성마저 차단해버렸다.¹⁴⁾

14) 이렇듯 육체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부권의 소유물이었다. 권력에 대항할 때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삭발식이 한국인의 상상계에서 신체가 어떤 가치를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뒤이어 각자 분리된 개인적인 공간에서 익명으로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펼쳐지면서 개인의 공간이 조금씩 확보되었고, 현대인들은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로 이미지의 조합이나 조작으로 괴기스러운 이미지들을 만들어 패러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음으로써 그로테스크한 이미지가 새로운 담론의 수단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더하여 각 개인은 육체와 욕망을 지닌 유일한 인간이라는 서구의 탈근대적 사상의 영향은 억압되었던 한국사회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퓨전’이라는 단어로 거듭 태어난 ‘탈경계’의 관념이 요식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변용, 확산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적 유입이 90년대 후반의 독특한 정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과거에 가졌던 신념에 커다란 환멸을 일으켰고, 그동안 그러한 신념을 지탱하게 해주던 방어기제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공포와 폭력성 혹은 잔혹한 패륜적 살해를 지칭하는 단어처럼 여겨지던 ‘엽기’의 개념이 새로운 상상력의 장을 대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상식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반개인적 사회 틀과 더 이상 공감도 얻을 수 없고 설득력도 상실해버린 재래의 고정관념을 깨려는 욕구는 격렬함 없이는 표출될 수 없었고, 바로 이러한 표출의 욕구가 시대적 변혁의 흐름에 편승하여 상상력의 해방을 낳으며, 엽기적 상상력을 추동한 것이다.

이처럼, 잔혹성의 미적 향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권력의 신성화된 폭력성에 대한 환멸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프로이트의 『환상의 미래』¹⁵⁾에서도 다뤄지고 있듯이, 천년을 지속해온 종교이자 국가 권력의 보루이기도 했던 가톨릭교에 대한 환멸에서, 그것의 권위에 결탁한 정치구조에

지니는지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상징적인 신체 절단 혹은 훼손을 통한 권력에의 항의는 바로 부권의 거부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15) S. Freud, *L'avenir d'une illusion*, Puf, 1971.

대한 환멸과 더 나아가 왕의 살해로 이어진 역사적 사건이 프랑스 혁명이었다. 그 대가로, 그들은 각각의 평등하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권리의식을 갖게 되었다. 데리다는 *États d'âme de la psychanalyse*¹⁶⁾에서 이러한 오이디푸스적 정치상황에 대한 인식과 환멸은 다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덕택으로 이성중심주의적 인간관에 대한 환멸과, 인간 본유의 충동이 지니는 잔혹성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면서, 잔혹성의 정치적 이용을, 세계질서 유지라는 명분의 전쟁이든 국가의 도덕적 질서유지라는 명분의 사형이든,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이상으로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나치며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기존 가치에 대한 어떤 환멸도 허용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의 주류인 한문학에서 괴기함과 잔혹성에 대한 상상력, 다시 말해 현대적 의미에서의 엽기적 상상력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심의(沈義)의 『대관재 몽유록』에서 우리는 그로테스크에 관한 조선 한문학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화자는 시적 취향의 으뜸으로 꼽히는 “뜻밖에 다른 맛”은 곧 “쑤”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이때 훌륭한 시를 짓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고백하는 화자에게 진정한 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천자의 화답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준다 - 천자에 따르면 “시에 는 귀법(句法)이 있어서 평담(平談)하나 천속하지 않으며, 또한 기고(奇古)하나 괴벽하지” 않아야 한다. 즉, ‘쑤’는 뜻밖의 다른 맛을 의미하면서도 옛 취향을 본받는 것으로, ‘怪癖’ 즉 그로테스크한 취향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가치매김에서 볼 때, ‘기’와 ‘괴’가 동일시되고 공포를 기반으로 하는 ‘엽기’ 미학이 고전한문학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하

16) J. Derrida, *États d'âme de la psychanalyse*, Galilée, 2000. 이 책은 프로이트를 대부로 삼고 있는 정신분석의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식에서 마련된 한 정신분석학회에서 데리다가 했던 강연의 기록이다.

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그 시대에 엽기적 상상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알다시피, 『해와 달이 된 오누이』나, 『변강쇠가』와 같은 설화나 전설 등이 엽기적 상상력의 발현 통로가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그러한 상상력을 과연 근대이후로 형성된 ‘엽기취향’¹⁷⁾과 같은 수준에 위치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하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비주의적 미신이 타파되기 이전의 상상력에 엽기적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비록 합리화된 근 현대 주체의 ‘엽기취향’에 비교될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 엄격한 유교적 틀을 깨뜨리거나 적어도 벗어나는 반이성적 혹은 비이성적 격렬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상력이 합리적 사유주체의 정립 이전의 원초적, 유아적 충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 사실은 엽기적 충동과 상상력의 보편성을 담보 해주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엽기적 상상력의 뿌리를 무의식의 영역에 위치시키려는 이유가 있다.

3. 엽기와 무의식

3-1. 獵奇의 새로운 의미해석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엽기’ 미학이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접근할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엽기’의 의미를 재검토하여 하나의 미학적 개념으로 정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새로운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여기서 한자풀이를 시도해볼 것을 제안한다.¹⁸⁾ 알다시피, ‘엽기’는 ‘사냥하

17) 천정환은 ‘그로’ 혹은 엽기코드 중에 하나로서 고전 속의 기담과 야담에 대한 관심을 들고 있다. 『계몽주의 문학과 재미의 근대화』, 『역사비평』 n° 66, 2004 봄, 355쪽

다'를 의미하는 '獵'과 '기이하다'를 의미하는 '奇'가 조합된 말이다. 앞서 보았던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가 바로 이들 한자어들의 가장 기본적인 뜻풀이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한자풀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사전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이들 한자어들이 매우 다양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詳解)漢字大典』이나 『(東亞)漢韓大辭典』, 혹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제작한 『韓國漢字語辭典』 등의 대규모의 사전들은 '獵'과 '奇'에 대해 다음과 같은 뜻풀이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獵'은 '사냥하다', '찾다', '놀라게 하다', '쥐다, 손으로 잡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 또는 소리' 그리고 잎이 떨리는 이미지로부터 '피리소리'로 그 의미가 발전하여, 언뜻 보기에는 사냥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의미들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어쨌든 사냥에서 쫓고 쫓기는 관계를 연상하고, 달아나는 짐승을 기습적으로 사로잡는 행위를 상상한다면, 마지막 의미를 제외한 의미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바람에 나부끼는 잎의 흔들림은 사로잡힌 채 경악과 공포 속에서 바르르 떠는 짐승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렇듯, '獵'은 사냥감을 뒤쫓고 기습적으로 사로잡는 행위인 동시에 뒤쫓기는 사냥감의 놀람과 죽음의 공포까지도 내포하는 매우 입체적인 낱말이다. 즉 이 말은 주체의 능동적인 행위와 그 행위를 감수하는 대상의 수동적인 상태를 모두 포함한다. '놀라게 하다'와 '손으로 잡다'는 달아나는 대상을 사로잡는 순간적인 행위를 떠올린다. 그 행위가 기습적일수록 그 감정의 소용돌이는 더욱 골이 깊고 클 것이다. 요컨대 '엽기'는 기이함

18) 이 글에서 전개되고 있는 '엽기' 개념의 한자 뜻풀이와, 뒤이어 전개될 '엽기' 개념과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미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대해 필자는, 최애영, 『오늘날의 엽기, 그 정신분석』, 『문학 판』 창간호, 2001년 겨울, 94-109쪽에서 그 초안을 이미 마련했었다.

을 찾아다니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사로잡힌 대상이 경악과 공포에 전율하는 매우 역동적인 정서적 움직임을 동시에 내포한다. 이때 ‘엿기’ 속에서 사로잡히는 대상은 물론 기이함을 뒤쫓는 주체 자신이다. 그러면 왜 주체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괴기함 속에서 즐거움을, 혹은 쾌락을 느끼는 것일까? 괴기함이 유독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 괴기한 현상 뒤에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츄’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츄’는 무엇보다 ‘다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괴이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그것이 특별히 다르기 때문이다. ‘大’와 ‘可’의 두 의미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이 글자의 뜻이 ‘다르다’에서 ‘기이하다’로 발전하는 것은 “사물이 너무도 커서 보통 것과는 가히 다르”기 때문이며¹⁹⁾, 이로부터, 특별부동(特別不同)으로서 짝이 없어 홀수의 뜻으로도 쓰인다. 다시 말해 ‘츄’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의 속성을 가리킨다. 이것은 영어 단어 ‘odd’나 프랑스어 단어 ‘singulier’의 의미 고리를 연상시키면서²⁰⁾ 이러한 의미들 사이의 연상이 어떤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사전들에 따르면, ‘츄’는 ‘秘’ 즉 ‘숨기다’, 그리고 이로부터 ‘기적(奇蹟)’ 즉 신비로움, ‘거짓’ 혹은 ‘거짓말’을 의미하게 되며, 또한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는 ‘우수리’를 뜻하기도 한다. 다름이 특이한 감정을 환기시킨다면, 그것은 우수리가 예측 가능한 인과관계의 논리로 딱 떨어지는 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는 구분되는 차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 의미 고리로부터

19) 李 敦柱, 『漢字學總論』, 박영사, 2004, 217쪽.

20) 알다시피 ‘odd’는 ‘홀수’를 의미할 뿐 아니라 ‘기이하다’를 또한 의미한다. 프랑스어의 어휘 체계에서 ‘singulier’는 단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범상한, 독특한, 기이한, 놀라운 등을 뜻한다.

터 다시 다름이 관건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쑤’는 이성적 논리에 의해 떨어지지 않는 차이로서 바로 의식의 표면적인 세계와는 다른 무의식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이 말이 기습(奇襲)이란 표현이 말해주듯, ‘갑자기’ 혹은 ‘돌연’을 또한 의미한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 본 ‘獵’이 내포하는 ‘놀라게 하다’를 다시 떠올리게 함으로써 경악의 의미를 강화시킨다. 이것은 ‘엽기’에 내포된 무의식의 차원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식의 표면으로부터 누락된 채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것이 우리의 의식을 기습하는 순간에 경악하고 전율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엽기’는 바로 이 억압된 것이 회귀해 올라오는 급작스러운 순간에 사로잡힌 주체의 공포를 본질적인 특성으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무의식이 회귀해오는 순간에 기습적으로 느끼는 공포는 의식이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의식이 억압되었던 것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목적인 공포는 그야말로 끔찍한 것이다.

3-2. 獵奇와 프로이드의 das Unheimliche, 공포 그리고 죽음 충동
 이처럼 단어 자체의 의미해석에서 ‘억압된 것의 회귀’의 체험이라는 獵奇의 개념을 도출해낸 이상, 프로이드의 das Unheimliche(uncanny)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프로이드는 억압된 것이 회귀해오는 순간의 정서적인 움직임에 독일어 단어, ‘das Unheimliche’의 의미 가치와 연결시킴으로써 무의식의 충동적인 반복에 연결된 정서적 움직임에 대한 논의를 미학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²¹⁾ 그는 ‘무서운 것’ 혹은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는 것’으로 이해되는 단어, ‘das Unheimliche’에 대한 의미

21) 프로이드, 『두려운 낯설음』, 정장진 역,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열린책들, 1998, 97-150쪽.

론적인 접근을 통해 불안한 감정과 유사하면서도 그것과는 구분되는, 우리를 묘하게 사로잡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적했다.

‘heimlich’는 원래 ‘가정의’, ‘낯익은’, ‘친숙한’, ‘안락한’, ‘내밀한’ 등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가 ‘숨겨진’, ‘비밀스러운’으로 발전하면서, 숨겨진 미지의 무엇이 솟아나올 것만 같은 수상하고 불안한 감정과 함께 공포를 자아내는 분위기나 사물까지도 의미하게 된다. 프로이드는 ‘unheimlich’에 의해 환기되는 무서운 감정은 ‘감춰져 있어야 할 비밀스러운 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느끼는 감정을 가리킨다는 셸링의 말을 떠올리면서, ‘unheimlich’는 ‘heimlich’에 대립되는 감정이기보다는 오히려 ‘heimlich’에 포함되는 감정의 한 종류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인다. 이로부터 그는 ‘unheimlich’를, 더 정확히 말해 ‘heimlich-unheimlich’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억압되어 있던 것이 회귀해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이를 ‘das Unheimliche’라고 정의했다. 너무도 내밀한 나의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나에게 낯설고 기이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의식이 내 무의식에 억압된 것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das Unheimliche’를 ‘섬뜩함’, 즉 ‘묘하게 불안하게 하는 감정’으로 번역한다. 무의식의 시선은 어떤 분위기나 이미지 앞에서 의식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때 우리의 의식은 웬지 모르게 소름끼치고 ‘섬뜩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엽기’와 ‘das Unheimliche’의 두 개념은 같은 미학적인 공간 속에 공존할 수 있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엽기’가 잔혹성의 상상적 연출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상상적인 파괴 충동의 미적 향유와 그에 따른 전율에 본질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라면, 프로이드의 개념은 무의식적인 환상작용이나 환상적 순간에 느끼는, 토도로프가 지적했듯이, ‘지적 모호함’에서 오는 묘한 불안감에 훨씬 더 중요성을 부여한다.

여기서 그러한 공포의 감정이 어떻게 잔혹성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보자. 프로이드는 『쾌락원칙을 넘어서』에서, 공포(Furcht)와 불안(Angst) 그리고 경악(Schreck)을 구분하면서, 각각 억압된 것의 회귀를 예고하는 위험신호, 구체적인 대상에 무게 중심을 둔 구체적인 감정, 그리고 억압된 것이 기습적으로 올라오는 순간에 의한 사로잡힘으로 정의한다.²²⁾ 또한, 그는 억압된 것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에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불안의 소용돌이를 충동적인 에너지의 양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정서적인 불안은 에너지가 자유롭게 분출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데서 생기는 불쾌의 감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쾌락이란 무엇보다 에너지의 자유로운 방출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악이 억압되어야 할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자유롭게 방출되는 순간을 가리킨다면, 불안은 차라리 은밀하게 누적된 에너지의 압력이 증가하는 상태이며, 공포 혹은 무서움은 충동적인 에너지가 자유로이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미 에너지가 하나의 생각의 고리로 결합된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프로이드는 억압된 욕동 에너지의 분출을 ‘죽음충동’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에너지의 분출 자체는 쾌감을 주지만 그것이 억압된 것의 회귀를 동반하기 때문에 또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위기감이야말로 바로 ‘엽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섬뜩함’에 내포된 묘한 불안함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조직된 환상적인 색조를 결정하는 요소라면, ‘엽기’는 억압된 것이 회귀하는 순간에 욕동의 충동적 에너지가 분출되는 국면을 담당하는 것이다. 곁들여, ‘엽기취향’과 불안 혹은 공포 사이의 관계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쾌락을 담보로 하는 불안감을 설렘, 두근거림이라 부르며, 그러한 공포를 짜릿함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상적이지 않은 낯선 것을 추구하는 문자 그대로의 엽

22) 프로이드, 『쾌락원칙을 넘어서』, 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04, 276쪽.

기 취미는,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친숙하지만 망각되어 버린 것이기에 낯설고 기이할 수밖에 없는 그 무의식적인 무엇이 회귀해오는 양상을 모방하며, 그러한 모방이 엽기의 유희적 성격에 쾌락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알고자 하는 욕망,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욕망의 저변에는, 도저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억압된 무의식에 다가가는 위기의식이 개입해 들어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로 진실을 발견하고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서는 일에는 종종 저항과 방어막을 벗겨내는, 실존의 궁극적인 수수께끼이자 불가피한 운명인 죽음이 떠올리는 폭력성과 위기감, 그리고 그에 따른 공포가 수반된다. 의식이 그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기이한 것을 쫓는 엽기행각은 이러한 무의식적 인식작용의 양상을 띠며, 그 중심에는 죽음충동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적인 직감이 ‘엽기’의 관념 속에 공포와 잔혹성을 개입시키는 것이다.

이때 에너지의 발산 그자체가 파괴적이면서 동시에 쾌락적이라는 유물론적인 입장도 불구하고, 미학적 현상으로서의 ‘엽기’가 결코 ‘경악’이라는 언어도단의 기습적 에너지 분출을 의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결국 미학적 현상으로서 그리고 유희의 현상으로서의 엽기는 불안함과 공포를 적절하게 조합한 정서적 효과로 구성되는 것이다.²³⁾ 여기에 기습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식이나 고정관념을 비논리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깨뜨리는 데 있다. 달리 말하자면 엽기는 날 것 그대로의 욕동 에너지의 분출이 아니라, 상상력에 의해 2차적으로 가공된 사건이나 사물을 체험하는 데 있으며, 바로 이것이 창작이나 향유의 전략이 위치되어야 할 지점이다. 왜냐하면 프로이트에 의하면, 욕

23) 예를 들어, 최근 공포소설의 문제작으로 꼽히는 김종일의 『손톱』(2008)은 정체 모를 무엇을 어디선가 이미 보았다는 “기시감”의 효과를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서 이미 암시되었던 사건이 임박했음을 예감하게 함으로써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동은 주체의 육체와 정신이 만나는 접점에서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표현하며, 무엇보다 사물이나 말에 의한 표상작용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구토감이나 배탈이 ‘더럽다’는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그 역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잔혹성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억압된 욕동의 에너지가 표출되는 한 전략적 방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왜 유독 현대인들에게 ‘엽기 취미’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는가를 마지막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주의의 대두는 분명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함으로써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갈수록 거대해지는 사회 조직은 개인의 왜소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며, 개인의 그러한 나르시시적 상처는 자아의 상상적 죽음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거창한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우울한 현실에 대한 권태는 고립된 개인의 상상세계를 공격적이고 파괴적으로 만들기 마련이다. 개인의 상상세계는 무의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물론 그러한 상상력의 표출이 그의 무의식을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한 증오와 분노가 정도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무의식적 성향에 따라, 때로는 잔혹하게, 때로는 고약하게 상상의 대상을 꼬집고 할퀴고, 찢고, 해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세계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주체는, 역시 자아는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 듯, 그러한 험악하고 잔혹한 여정을 무사히 통과해왔다는 안도의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4. 새로운 문제제기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날 광범위하게 확산된 ‘엽기’의 일상화된 용법

아래 잔혹성과 공포라는 두 요소가 은연중에 상상되고 있음을 진단하고,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꽤 긴 역사적, 사회 정치적 변화의 맥락을 짚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지점은 엽기에 관련된 잔혹성은 그 자체로서 억압된 것의 회귀와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무의식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그들 내면에서 거북하게 솟아오르는 무의식적 요소를 재현하고 향유하기 위해 선택한 현대적 전략의 문제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프로이드는 허구세계인 문학 속에서는 실제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섬뜩한 느낌이 창작의 전략이나 작품의 맥락에 따라 전혀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 때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지적했다.²⁴⁾ 우리는 ‘엽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문제로 남는 것은 작가가 자신에게 펼쳐지는 생경한 리얼리티를 어떤 비전으로 추적하며 어떻게 문학 속에서 (혹은 더 넓게 문화 예술적 생산 속에서) 형태화하는가, 그리고 독자/비평가는 작가가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재현한 엽기적 순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것으로, 더 나아가 다른 많은 향유자들의 것으로 되살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만 분류가 지니는 경계 짓기가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경적된 행태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무엇이 엽기이고 아닌가에 대한 선부른 판단은 금물일 것이다. 지금부터 남은 과제는 작품들 속에서 공포와 잔혹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예외적인 순간들을 찾아서 그 순간을 음미하고 해석함으로써 함께 즐거움을 나눠 갖는 일이다. 지금부터 해야 할 연구 과제는 비평적 입장에서 ‘엽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며, 개인적인 말이겠으나, 필자에게 그 탐험의 영역은 아마 문학작품이 될 듯싶다.

24) 프로이드, 「두려운 낮설음」, 정장진 역,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열린책들, 1998, 149-50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개벽』, 『동광』, 『별건곤』, 『삼천리』, 국사편찬위원회 통합자료검색.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국사편찬위원회 통합자료검색.
 김영하, 「괴뢰침」,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문학과지성, 1999.
 김종일, 『손톱』, 황금가지, ‘밀레니엄 셀러’, 2008.
 백민석, 『목화밭 엽기전』, 문학동네, 2000.
 정영문, 『검은 이야기 사슬』, 문학동네, 1998.
 심의, 「대관재 몽유록」, 『몽유록』, 구인환 역, 신원문화사, 2004.
 『새국어 소식』, 2001년 8월 8일.
 김정규, 「엽기 패러디 시대의 한국문학」, 『국립국어원 열린마당』, ‘나도 한마디’,
 2004년, 10월 4일.
 『간행물 윤리』, 제 281호, 2001년 12월 5일.

2. 논문과 단행본

- 장진구, 「한국의 엽기와 일본의 료우키 문화」, 『문화와 신앙』, ‘문화읽기’, 활천사, 2001, 88-89쪽.
 김주리, 「엽기취미의 조직과 1930년대 범죄소설의 의미」, 『현대한국문학회 2007년 동계학술발표회』, 88-102쪽.
 李 敦柱, 『漢字學總論』, 박영사, 2004.
 정철상, 「청소년의 엽기문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 15권 제 2호, 2008, 121-145쪽.
 천정환, 「계몽주의 문학과 재미의 근대화」, 『역사비평』, n° 66, 2004 봄, 343-363쪽.
 최애영, 「데카르트에서 카조트 사이에 등장한 악마의 운명 : 욕망의 복권에서 새로운 은폐로」, 『불어불문학연구』 제60집, 2004년 겨울, 427-464쪽.
 최애영, 「오늘날의 엽기, 그 정신분석」, 『문학 판』 창간호, 2001년 겨울, 94-109쪽.
 프로이트, 「두려운 낮설음」, 정장진 역,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열린책들, 1998, 97-150쪽.
 프로이트, 「쾌락원칙을 넘어서」, 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04, 267-343쪽.

『한국출판연감』 자료편, 대한출판협회, 2000.

J. Derrida, *États d'âme de la psychanalyse*, Paris : Galilée, 2000.

S. Freud, *L'avenir d'une illusion*, Paris : Puf, 1971.

abstract

Research into an aesthetic conceptualization of '*Yopki*'

–Toward a psychoanalytic approach of cruelty and fear–

Choe, Ae-Young

This article aims to make an aesthetic notion of the word *Yopki*, by taking it as a secondary notion and not as a familiarized one in the everyday life. Most Koreans imagine at first cruelty and fear when they think about its meaning. As it represents the grotesque, which arouses a curiosity, it could hold the fear of strangeness as a conceptual element. But how can it be associated automatically with cruelty? To answer this question, we seek firstly a history of the taste for '*Yopki*' since 1930s to nowadays and analyze the modifications of its meaning. It is toward Freud's aesthetics of Unconsciousness that our perspective is oriented. In this objective, we do also a very detailed analysis of the two chinese ideograms which constitute the word, to associate them with the return of the repressed, by calling for some Freud's notions like uncanny, pleasure principle, death instincts. By that, we can see the possibility to link the characteristics of *Yopki* with fear or angst which are produced by the return of the repressed. To finish, observing that the boredom and the narcissistic wound of an isolated individual in his hyper modernized life make his imagination aggressive and destructive, we can finally say that cruelty remains under the meaning of *yopki* in spite of its widespread and familiarized usage. (key words: *yopki*, fear, cruelty, grotesque, unconsciousness, uncanny)

위 논문은 2008년 10월 31일 투고되었고, 2008년 12월 1일 심사 완료 후,
12월 2일 게재가 확정되었음.